

뜻깊은 날에 안겨주신 불멸의 지침

주체건축과 주체교육부문의 본보기적창조물로 훌륭히 솟아 준공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바라볼수록 우리의 가슴에 뜻겹게 어려온다.

두해전 10 월 17 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찾으시여 우리 당을 광범한 군중속에 튼튼히 뿌리박은 인민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금옥같은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엄한 영상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날에 하신 기념강의에서 군중과의 사업이 당의 대중적지반을 다지고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 동시에 당의 존립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라는데 대하여서도 중요하게 언급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항상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예민하게 대응하며 민심을 조정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 백년대계의 당건설의 중요한 담보인 청소년들과의 사업에 품을 넣을데 대한 문제...

이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언젠가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태어났고 창건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해왔으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인민들은 우리 당을 어머니로 부르며 따르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체혁명의 뿌리가 내려진 뜻깊은 날에 우리당 중견간부양성의 원종장을 찾으시여 하신 력사적인 기념강의는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최장의 집권사를 기록하고 있는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전도양양한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불멸의 지침이였다.